

복음 경제

잠언 11:23-31, 빌립보서 4:19

최정웅 목사님

에베소서 6:1-4을 읽겠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 주는 어린이주일이다.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 대신 잠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다. 잠언 11~13장을 비롯한 잠언 곳곳에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사람들도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성경에도 경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성경은 경제를 말하는 책이 아니다. 복음을 말하는 책이다. 하지만 복음과 진도가 되어지는 자에게는 복음을 위한 경제가 붙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 속에서 복음 경제에 대한 부분을 묵상해 보려고 한다. 복음 안에서 경제를 누리는 원리는, 우리가 경제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경제가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다. 경제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남자가 기도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받고 싶으냐?” 이 남자가 대답하기를, “평정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남자도 할 수 없고, 해 보려고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더니, “알겠다. 내가 너를 가정주부로 삼겠다.” (웃음) 가정주부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현장에 꼭 필요한 일이다. 기도제목을 잘 잡아야 한다. 쓸데없는 기도제목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다. 웃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조크를 잘못 한 것 같다. (웃음)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흘러간다는 말이다. 그것을 붙잡으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필요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해놓으시고 뜻하시고 계신 그 방향과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신자는 그 길로 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성공한 것 같은데 종말에 가서는 감옥에 가게 된다. 가정을 최고의 가정에서 최악의 가정으로 만들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누림으로 경제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두 가지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겠다.

1. 복음 가진 자가 가져야 할 경제 관념

복음 가진 신자, 성도가 가져야 할 경제 관념이다. 경제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져야 하겠는가?

(1)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경제를 두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고 했다. ‘이것은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고 했다. 우리 할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야, 걱정할 것 없어. 다 자기 먹을 것을 타고나는 법이야.” 이것을 너무 걱정하니까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고 자기만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안타깝다. 우리 램턴트들은 안 그런다. 하나라도 더 낳으려고 발버둥치니까. 하지만 바깥에서는 인구절벽시대가 오고 있다. 2030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학교가 문을 닫는 지경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공급해 주신다.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3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안에 우리의 경제도, 삶도, 다 들어있음을 믿으라. 믿어야 한다. 정말 주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다. 경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2) 두 번째는, 육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잠언 15:27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한다’고 했다. 마태복음 6:24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다. 경제의 이익 보는 것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룬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름진 소똥 땅을 선택했는데, 이 땅이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다. 거기에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모든 재산, 가정을 다 잃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다가, 가병 318명을 움직일 만큼 경제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잠언 28:25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다. 마태복음 6:33에서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까지 채워 주신다.” 길을 바로 선택해서 서야 한다. 이것을 믿고 누려야 한다.

(3) 지금 경제 관념, 경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과 경제를 주관하고 계신다.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불신자의 경제를 축복하시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집중된 곳은 따로 있다. 그들에게는 임시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축복하실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그 사람, 그 사건에 역사하시는 법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위한 경제가 따로 있다.

①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경제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결국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고 사단과 지옥 배경 때문에 생긴 문제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인간의 잔꾀와 수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그리스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복음 경제를 하나님은 따로 예비해 두셨다. 그 실례가 성경에 많다. 구약에서는 오바다다.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선지자 백 명을 보호하고 돌보았다. 따로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ICC주석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업을 길게 설명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낮에는 바울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계속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복음이 완전히 확립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계속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천막인데, 이 사람들을 군납업자로 임명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결국 로마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할 때 기수가 되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식주인이 된 것이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지대한 공을 세웠다. 초대교회 평신도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였다. 모든 교역자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가이오가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었다. 전도, 선교를 위한 복음 경제를 찾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 창고를 발견하고 그것을 써라. 눈을 떠야 한다.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인다. 이 사람들은 순전히 그렇게 했다. 우리와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②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미래 경제도 준비해 놓으셨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몰라서 아이를 안 낳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램턴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라. 전도 못하는데 많이 낳기라도 해서 제자 많이 만들어야지. (웃음) 그래도 다섯 명 낳는 것은 좀 그럴 것 같다. (웃음) 요셉은 미래 재앙을 막는 7년의 경제 응답을 받은 인물이었다. 노예였고 감옥살이했던 사람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다. 미래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사건을 일으키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감옥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과 통하

면 된다.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진도 서밋이 되면 복음 경제, 미래 경제가 눈에 훤히 보일 것이다. 예를 들려면 한이 없다.

③ 세 번째로, 많은 경제가 마약이나 도박 같은 범죄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상 문화로 경제가 엄청나게 흘러간다. 사람들이 교회를 왜 그렇게 크게 짓느냐 하는데,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흘러가는 돈이 1년에 3조 원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선거철이 되면 줄을 선다. 계속 갖다주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한다. 성전 짓는 데에 10원도 안 낸 사람이 교회 크게 지었다고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기업과 금융을 완전 장악한 3단체는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빛의 경제가 있다. 악한 경제만 있는 게 아니다. 범죄해야만 돈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복음 경제가 있고, 미래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의 경제가 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빛의 경제를 가지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계신다.

복음으로 모든 경제 관념을 뒤집게 되시기를 축복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경제, 미래 경제, 빛의 경제를 찾아내면 된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오바다처럼, 브리슬길라 아굴라처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처럼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란다.

2. 전도자에게 주시는 경제 전략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경제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겠다. 경제 전략이다. 복음으로 경제를 정복할 전략을 한 네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가장 먼저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한다. 나에게 이미 있는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쓸 것인지를 확립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 하는가? 월급, 생활비를 받으면, 제일 뽀뽀한 새 지폐를 골라서 십일조 먼저 떼었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미리 봉투에 다 넣어두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썼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금방 보인다. 일본이 특별히 예외지만, 김준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셨다. "예수님을 좋아하기만 해도 축복하신다."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좋아한다. 결혼식은 반드시 예배당에서 하려고 한다. 일본에 가 보니까 열 사람만 모여도 목사님을 모신다. 우리는 그렇게 절대 못 하는데, 10명 모이는 것으로 교회 세우면 목사님이 굶어죽기 좋다. 그런데 일본은 10명 만 모여도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류목사님은 '일본이 세계복음화하기 딱 좋은 나라'라고 하신다. 규모가 너무 반듯하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더니 록펠러는 39년 동안 세계 1등 부자가 된 것이다. 자기가 번 돈 중 200만 달러만 자기 생활비로 쓰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다. 그 200만 달러만 가지고 또 투자해서 300만 달러로 만들어놓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람 눈에는 돈이 굴러다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어떤 장로님도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엑스플로 대회 때 모자란 것을 자기가 다 충당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네가 정직한 십일조를 드렸는데 내가 네 창고와 내 창고를 이어주는지 안 이어주는지 시험해 보라." 여러분, 확실하다. 마태복음 6:19-20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다. 잠언 11:28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했다. 잠언 16:3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현금 계획을 제일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소비 계획을 세워 보라. 나는 이 일에 증인이다. 그 말을 다 하려면 예배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말을 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굶긴 적이 없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올-인하는데 굶어죽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거기에 생명을 걸고 올-인 했는데 어찌 하나

님이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2) 이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전문성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못 배워서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 것도 못 배운 할머니가 김치 한 가지를 가지고 성공했다. 다윗은 돌맹이 하나를 잘 던졌는데 적장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다. 그래서 왕이 된 것이다. 전문성은 특기나 기술이 아니다. 잠언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 잠언 24장에 게으른 사람은 경제를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잠언 21:5에는, 부지런하되, 조금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잠언 21:6에는, '속이는 말로 쉽게 재물을 구하면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잠언 13:11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했다. 이런 기본적인 규모, 자세가 바로 전문성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다. 종살이를 잘 했다. 시키는 것을 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을 받아 가면서. 그랬는데 그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렸다. 전문성이 굉장한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3)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게 주신 전문성을 발견하게 되면, 여기에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하게 된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것이 전문성이라면, 나의 것을 찾는 것이 전문화다. 다윗이 돌을 던지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만큼 전문화를 시킨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진 나의 것이었다. 그러면 나의 현상이 열리게 되어 있다. 가는 곳마다 놀랍게 열린다. 이것이 세계화다.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전 세계가 다윗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화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 전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 정복할 세 번째 전략이다. 잠언 22:29에,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세계화, 복음화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되어지니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서 하겠는가. 성경에 된 사람은 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었다. 잠언 16:9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다.

(4) 이렇게 받은 응답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라는 3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25절에 보면, "흠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27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살리는 경제로 갈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시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경제 정복을 놓고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자기 삶과 자기 업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반드시 찾기를 축원한다. 찾으셔야 한다. 먼저 뭘 해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야곱이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야곱 이후로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성의 업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먼저 찾아라. 이것을 찾는테서부터 경제 응답이 온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의 당연, 필연, 절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전도자의 경제를 축복하신다. 잠언 13:22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전도자를 위해서 불신자의 경제부터 움직여온다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경제를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한다. 여러분의 일생과 후대의 일생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로, 후대 살리는 램턴트 선교사로, 경제 살리는 홀리메이슨(Holy Mason)으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한다. 우리 교회에도 넉넉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해 한 몫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진짜 복음 경제를 알고, 경제의 비밀을 압으로써,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공부하는 중에 복음 경제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경제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경제를 움직일 지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